



## 잠복근무

전라북도 순창군청 조성수

잠깐 붙인 눈을 떠 몇 시나 되었나 보았더니 아침 10시를 넘어서고 있었다. 꼬박 날을 새다 시피하고 인근 찜질방을 찾아 대충 씻고 구석한 칸에 몸을 한 게 아침 7시쯤이었으니 어린 세 시간 쯤 잠을 잤나 보다.

어제 아침 우리는 8년 전 처음 체납된 이래 22건 268만원 가량이 체납된 대포차량의 보험가입 운전자로 알아내고 그 자를 만나볼 예정과 우리 군 등록차량 중 징수촉탁 차량이 체납 징수팀에 포착되어 번호판 영치를 하려 했으나 납땜으로 번호판이 떼 지지 않아 영치를 도저히 못하고 포기했다고 그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몇 달전에 경남 00시청 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대포차 운전자. 그 체납 건 또한 23건에 208만원정도의 체납이 있었다. 그리고 매해 250여만원 가량의 재산세 토지분을 반복적으로 체납해 온 경주에 사는 000씨와 순창에 주소를 두었을 때 70여만원이 체납된 부산의 000 씨 등 총 5명의 체납자를 탐문하기 위해 부산 등 경상도 쪽으로 나서게 된 것이었다. 가진 단서라고는 인적사항 뿐이었다. 사전에 만날 약속을 하고 나선 출장도 아니었기에 계장님과 나를 포함한 군팀 2명과 해당면 담당자 2명은 과연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를 하였다.

처음 도착한 곳은 전남 광양시에 주소를 둔 체납자였는데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안내해 준 곳은 황당하게도 “앗싸 모텔” 이었다. 장기 투숙객인거 같은 데 손님의 정보를 주인이 알려줄 리도 만무할거라는 우리는 참으로 난감하였다. 처음부터 징수활동이 막히는 듯하여 내심 낙심마저 되었다. 이 체납자의 핸드폰 번호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건 최후의 보류였다. 알리지 않고 거주지에 나타나 가족 등 연고자들 탐문을 통한 체납세 납부독려는 그 나름대로 효과가 있어 금번 출장은 그게 목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체납자가 둔 주소가 모텔일거라고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 어린 결국 출장의 첫 방문지는 탐문을 포기하기로 하고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기로 했다. 다행히 전화를 받았다. 어린 자초지종

을 설명했다. 특히, 대한민국 어디든 찾아다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현재 체납자가 주소지를 둔 간판 이름을 큰 소리로 “앗싸 모텔” 앞에 있다고 하였더니 지금 체납자는 그 모텔은 어찌할 수 없이 주소만 둔 것이며 타지에 돈 벌러 돌아다니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차량은 아는 사람한테 자기 명의를 빌려주어 본인이 운행하지 않는 차량이란단다. 하지만 본인의 책임이니 올해 안까지 두 번에 걸쳐 완납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체납액은 자동차세 90여만 이었다. 오랜 경험상 이런 경우는 받을 수는 있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 왜냐하면 거주지도 일정치 않고 유일한 연락방법이 핸드폰이기 때문이다.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지키지 못할 체납자의 빈 약속일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는 우리도 정말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 빈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위안을 삼는 수밖에. 이런 게 알면서도 속아 주는 것이 아닐 런지.

다음 탐문지는 경남 00시였다. 몇 달 전에 변호관을 영치하려 했으나 납땜을 어찌나 단단히 해 도저히 변호관을 떼지 못하겠다고 우리 군에 대포차 운행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온 바로 그 문제의 차! 실은 이 앞전에 한번 들른 적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오후에 들러 두어 시간 탐문하다 시간에 쫓겨 다음을 기약하고 떠나던 적이 있다. 그래서 이번엔 작심을 하고 왔다. 그때가 오후 네 시쯤 이었다. 아무래도 차량 운행자가 퇴근 이후에나 집에 들어 올 것이므로 우선 가까운 찜질방서 쉬다가 저녁때쯤 나와 잠복하기로 우리는 작전을 세웠다. 찜질방서 쉬다 나온 우리는 가까운 음식점에 가서 소주한잔을 곁들인 저녁을 먹고 저녁 9시가 다 되어 가는 시간부터 잠복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행여나 있을까봐 인근 500미터 이내를 찜질방으로 가기 전에, 찜질방에서 나온 즉시, 저녁을 먹기 전에, 저녁을 먹은 후에 살살이 훑어보는 것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차안 잠복근무에 들어가자마자 저녁을 먹으면서 곁들인 소주로 인해 두 명은 선잠이 들었고 계장님과 난 라디오를 들으면서 그 차량이 나타나기만을 한손에 몽키를 또 한손엔 드라이버를 들고 기다렸다. 밤은 점점 깊어가 자정을 넘어섰고 곧 한시를 넘겼으며 두시가 넘어가는 데도 그 체납차량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대로 보람이 없이 끝난다면 잠복하면서 흘려보낸 시간이 너무 아까웠다. 체납차량의 소유자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집근처 멀리에 차를 세우고 집으로 간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 있어 인근 500미터를 한시간 간격으로 살피보기도 했는데...세시가 다되어 가는 데도 끝내 체납차량은 나타나지 않았다. 우린 가망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음을 기약하기로 하고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부산으로 차를 돌려 대포차 보험가입자의 주소지로 네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아 차량의 속도를 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대포차를 운행하는 자가 혹시 출근이라도 하게 되면 또 다시 밤이 오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출근 전에 주변을 탐문하여

차량이 있으면 번호판을 영치할 요량이었다. 새벽 다섯 시 쯤 도착한 우리는 해당 주소지의 500미터 이내를 또한 살살이 뒤졌다. 각자 흩어졌다 다시 대포차 운행자의 주소지에 모여 그 주택을 기웃기웃 하면서 살피는데 우리의 동태를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는 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주택은 2층 가옥이었는데 2층 베란다에서 그 이른 새벽에 담배를 피우면서 우리가 있는 아래쪽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순간 오싹했다. 저 양반은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던 걸까? 대포차 운행자와 과연 어떤 관계일까? 우선 우린 암묵적으로 그 자리를 피해 주변의 차량을 계속 살피보았다. 그러나 우리가 찾고 싶어 하는 차량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양손에 들고 있던 번호판 영치도구가 이젠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우린 마지막으로 그 집 동태를 살피보고 결론은 내기로 했다. 우리가 막 그 집 앞으로 돌아서는 순간 그 집 대문 안으로 검은 물체를 들고 들어가는 남자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때가 새벽 여섯시가 막 넘어서는 순간이었다. 요상한 일이었다. 아까 이층서 우릴 내려보던 그 남자는 누구이며 이 새벽에 그 집에 들어간 그 남자는 도대체 누구인지 꼭 무언가에 홀린 기분이었다. 마지막으로 살살이 주변을 뒤져보아도 차량은 있지 않았다. 우린 그만 탐문을 마치고 근처 찜질방서 잠깐 쉬다 10시가 넘어 그 집을 방문해보기로 하고 차량을 찜질방으로 몰았다.

생각보다는 몸이 무겁진 않았다. 피곤은 하였으나 견딜만했다. 우린 대충 몸을 씻고 다시 그 대포차 운행자의 주소지로 향했다. 초인종을 누르고 밖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참으로 긴장되었다. 왜냐하면 그 차와 관련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보낸 만 하루가 아무런 보람이 없게 되기 때문이었다. 바로 젊은 한 남자가 문을 열고 나타났다. 다행히 그는 그 차와 연관이 있는 자였다. 밤을 꼬박 새우는 조그만 식당영업을 마치고 새벽에 들어와 자고 있었던 참이라고 한다. 우리가 새벽에 그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 뒷모습을 본 그 남자였던 것이다. 그 생각을 하니 또 한번 등골이 오싹했다. 7~8년전에 그는 그 차를 아는 분한테 싸게 사서 타고 다니던 중 2005년 크리스마스 전날 해질녘에 인적사망이 발생한 교통사고를 당해 본인은 병원에 장기입원을 하게 되었으며 그 문제의 차량은 폐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그때 그 사고가 하도 크게 나서 중앙 뉴스에 나왔으며 사건 사고를 처리했던 경찰서까지 자세히 알려주었다. 우린 그 정보를 가지고 관할 과경찰서를 찾아가 그 때 발생한 사건 사고 일지를 확보 할 수 있었으며 인터넷을 뒤져본 결과 그 당시 보도되었던 뉴스를 확보할 수 있었다. 8년 전 처음 체납된 이래 21건 268만원 가량의 체납세금이 해결되는 순간이었다. 큰 보람이 들었다.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잠복근무를 하며 애쓴 성과를 거둔 듯 하여 우린 속으로 환호를 질렀다. 이 일이 해결되고 나니 남은 일도 덩달아 쉽게 해결이 되었다. 바로 들린 67여만원의 체납자는 참으로 멀리서도 왔다고 하며

그 자리에서 즉시 온라인 입금하여 주었고, 경주시에 사는 그 분도 사업자인데 그 까짓것으로 이 멀리 까지 왔느냐며 고생하는 우리를 봐서라도 먼저 해주겠다며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했는데 그 분도 약속대로 말일 날 입금하여 주었다. 출장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한 직시 사고 난 대포차량에 대해 부과된 세금은 그 근거 서류에 의해 우리 모두 감액 조치하였다. 비록 현금 징수가 아닌 감액에 의한 체납정리 일지라도 보람이 되는 순간이었다. 돌아오는 우리 4명 모두의 입가엔 이틀간의 고생은 어디로 간 데 없고 무언가 해냈다는 안도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날을 꼬박 새운 잠복근무가 우리에게 감명받았나보다. ☺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은 지방재정 가족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교양지로서 아래와 같이 지방재정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논문이나 사례, 수기 등을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 제안 · 논문

지방재정발전과 업무개선에 관한 의견

#### ■ 우수사례

각 자치단체의 독특한 재정활동이나 우수사례로 널리 홍보하고 싶은 내용

#### ■ 수필

실무자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보람이나 어려움 그리고 지방재정인의 가족으로서 느끼는 생활이야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조합기금부  
서울시 마포구 마포로 136  
지방재정회관 16층 (우)121-719  
Tel : 02) 3274-2027  
Fax : 02) 3274-2009  
E-mail : myposse@kffa.or.kr

“지방재정”지에 실린 원고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본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방재정

2012년 제1호

발행인 김홍갑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편집인 노병찬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  
편집위원 곽채기 | 동국대학교 교수  
박원규 | 중앙대학교 교수  
손희준 | 청주대학교 교수  
이삼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만수 | 한양대학교 교수  
최진혁 | 충남대학교 교수  
최재경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사업본부장  
이용철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  
이상길 |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장  
안병윤 |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장  
김영철 | 행정안전부 공기업과장

발행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발행일 2012년 2월 일  
디자인·인쇄 사회문화사 (02-2263-0523)